

## 구경은의 “상형선율(想形旋律)” 상상 선율의 기념비적 전언(傳言) 공간구축 이명환(CAAP대표, 태백문화원 돌셋삼 미술관 명예관장)

독일유학시절 음악에 심취되었던 시각미술가 구경은의 드로잉은 자신의 시각으로 들어와 착색 세상의 온갖 대상들의 정체들을 헤쳐 내는 과정에서 축적되어 무의식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전자 피아노의 즉흥연주로 생성되는 선율의 전시이다.

또한 이번 전시 드로잉은 음악영역과 미술영역 감성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결과물로서 독일 음악대학을 거쳐 현지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최하선의 드로잉 감성을 엮은 번한 그랜드 피아노 연주곡을 통하여 붙여진 선율들을 시각적으로 나열하는 차가운 서정적 드로잉 행위의 흔적을 기록해 오고 있다.

종략...

이번 한국거대 폐탄광지대인 태백시의 문화원에서 갖는 구경은 기획 초대전 드로잉 색깔의 초점은 **Black** 과 **White**의 대명사 지대에서 갖는 데에 있다.

2억년의 시간의 격인 석탄을 캐어 먹고 살던 우리나라 근대의 산업전사 광부들이 좋은 수천 개의 지하갱도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치열한 경제력 획득의 노동이 남긴 검은 빛의 선율과 구경은의 화지에 위에서 케어내는 지상 환상곡 드로잉은 검은 빛으로 얽혀진다는 동일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

드로잉 선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길이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감정을 기호화한 암호의 선율과 소리(음)의 선율로 변환한 고대 인류의 발상은 오늘 날까지 멈춤이 없다.

고대인들의 상형문자는 주로 기념비에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기호화 또는 소리(음)의 집단을 나타내는 소통의 구현을 위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양각 음악방법으로 짧은 드로잉들이라는 문명을 새겨놓았다. 고대 아프리카 언어인 메로어(Meroitic language) 문자(음성학)은 해독이 어려운 짧은 드로잉 개념의 독자적인 발달을 가져왔듯 세계의 문명지의 공통점이 언어 드로잉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류가 종이도 아닌 대지위에 선으로 구축한 불가사의한 흔적들인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생성되었다는 페루 연안 평지 지역의 약 725m<sup>2</sup> 위에 전개되는 나스카 라인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준의 끝점이라는 제 4차 산업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렇듯 드로잉 선은 다양한 공간 속에서 조우할 때마다 특별한 모습으로 재탄생하는데, '오르피즘'이라는 마술운동의 선두적으로 이끌었던 로베르 들로네(Robert Delaunay)의 드로잉 기법은 음악적 율동의 미를 색채변화와 곡선으로 나타내 움직이는 화면을 구현하였다.

최첨단 과학은 천문학적 면적에서의 복합적 시스템에 의해 지오선(드로잉)이 이뤄지고 있다면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계가 점령하지 못하는 성역(聖域)이 바로 인간의 감성으로 그어내는 아날로그적 결과의 드로잉의 가치는 과히 기념비적이다.

이번 구경은의 작품전이 지금껏 시도한 유수의 작가들과는 또 다른 심리적 음률이 만들어내는 비정형적 방사행상을 최소단위로 축적으로 구성하는 차가운 서정적 드로잉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